

<건자재>

양적확대와 질적성장은“ 반비례”

94년 8월중 건설공사 계약액은 93년 동월대비 26.5%, 7월대비 4.9% 각각 증가한 3조7991억원으로 집계돼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건설경기 상승추세 지속

공공부문은 93년의 부진에 의한 상대적 영향으로 93년 동월대비 72% 증가했으나 7월대비로는 2.3% 증가에 머문 1조4279 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은 지하철 등 철도시설과 택지조성이 호조를 보였고, 건축은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던 주거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민간부문은 93년 동월대비 9.1%, 7월대비 6.6% 각각 증가한 2조3713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토목은 최근의 경기활황세를 반영, 공장부지 및 진입로공사가 호조를 보였다.

건축은 수도권의 택지난과 지방의 미분양 영향으로 주거용이 부진을 보였으나 비주거용은 공장신축과 업무용빌딩 신축이 꾸준한증가세를 지속했다.

8월까지 건설공사 계약액 누계는 28조209 억원으로 93년 동기대비 22.1%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은 SOC시설 발주호조로 토목이 93년 동기대비 18.6% 증가하였고, 건축은 주거용이 7월까지 계속 부진을 보여 미미한 증가에 머물렀으나, 비주거용에서 관공서와 학교의 신·증축 등 호조를 보여 10.5% 증가하였다.

민간부문은 토목이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공장부지 및 진입로 공사가 호조를 보여 11.6% 증가한 1조7243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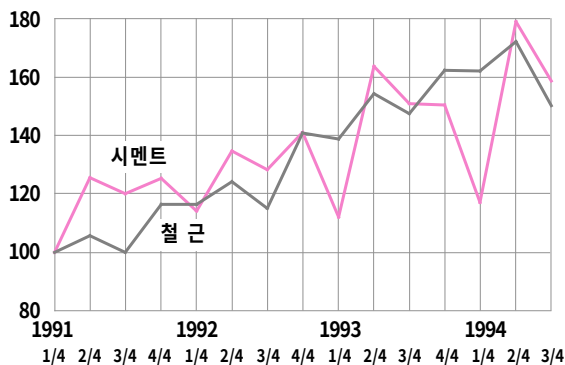
민간부문은 토목이 택지 및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꾸준히 늘고 있고 SOC시설 민자유치법안도 11월부터 본격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호조가 예상되지만, 건축은 93년 일산 등 신도시 특수가 있었던 것에 대한 상대적 영향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돼 3.0% 증가한 2조341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주요자재의 수급동향을 보면 8월중 시멘트의 생산은 437만톤으로 93년 동월대비 16.2% 증가하였으며 내수는 426만6000 톤으로 16.7% 증가하였다.

시멘트의 수급사정은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재고량이 충분해 94년말까지 무난한 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철근은 생산량과 내수량이 각각 65만톤과 58만9000톤으로 93년 동월대비 각각 4.7%, 2.4% 증가하였으나 현재 지속적으로 재고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약간의 과잉공급이 예상된다.

【그림1】 건설용 주요자재의 출하지수
(1991.1/4=100)



【표1】 합성수지건자재의 수출입실적

(단위 : M/T)

구 분	1993		1994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플라스틱 셔터·블라인드	1,739	11	2,549	0.6
PVC 바닥·벽·천정재	4,890	58,506	3,458	49,499
플라스틱 문·문틀·문지방	181	155	239	327
플라스틱 저장기·탱크 등	28	333	24	166
기타 플라스틱 건축용품	295	896	312	801
합 계	7,133	59,901	6,582	51,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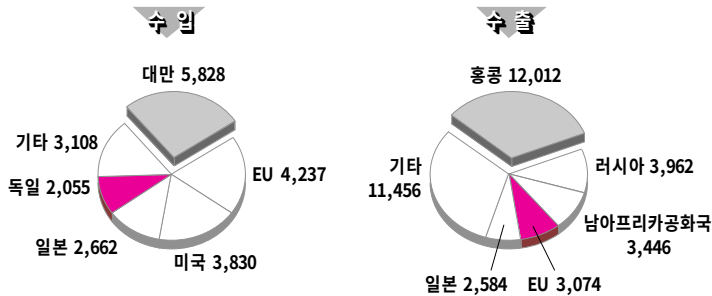
합성수지건자재 질적 성장 시급

주요 건자재의 수출입 실적을 보면, 우선 합성수지건자재를 기준으로 94년 8월까지 총 수입량은 6582톤에 불과한 반면 수출은 5만2422톤으로 수입량의 약 8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입실적은 순전히 PVC 바닥재의 수출이 4만9499톤으로서 전체 수출의 96.3%를 차지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PVC바닥재를 제외하고는 수입 3124 톤, 수출 1295톤으로 수입이 수출의 약 2.5배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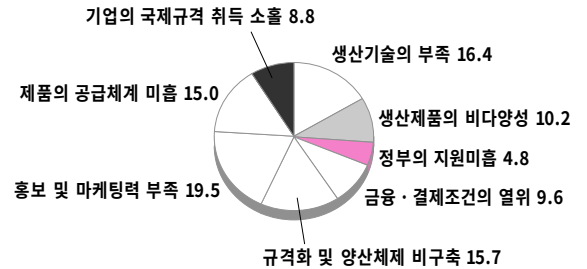
【그림2】 합성수지 건자재의 수출입현황(1994.1~9)

(단위 : 1000달러)



【그림3】 국내 기자재산업의 취약분야 (외국과 비교)

(단위 : %)



특히 셔터, 블라인드와 플라스틱재의 문·창문틀 등 외형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제품들은 지난 88년 이후 수입량이 매년 50% 이상씩 증가, 미국·유럽의 고가제품이 국내 고급 건자재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또 합성수지건자재중 대표적 수출품목인 PVC 바닥·벽재의 수출도 88년에는 9만톤, 90년에는 7만 2000톤, 93년에는 5만800 톤으로 계속 줄고있어 국내 건자재제품의 대외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합성수지건자재의 생산능력이 빠르게 증가, 과잉공급상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수입증가·수출감소의 추세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산 합성수지건자재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성장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합성수지 건자재의 주요 수입국가는 대만, EU, 미국, 일본, 독일 순이고 주요 수출국가는 홍콩,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EU, 일본 순이다.

【표2】 국산 건축용자재의 경쟁력분석

구 분	경쟁력 정도						최상국대비 기술 수준(%)
	가 격	규 격	품 질	홍보판매	금융결제	총 합	
인조 석재	2.3	3.3	3.0	3.7	3.3	3.0	80
타 일	3.0	3.0	2.7	3.5	3.5	3.0	85
방 수 재	3.0	3.0	2.7	3.5	3.5	3.0	85
창 호 재	2.6	3.0	3.0	3.5	3.5	3.2	80
유 리	3.0	3.5	3.6	3.5	3.5	3.5	70
석고 보드	2.5	3.0	3.0	3.7	3.3	3.0	80
카 페 트	2.5	3.0	3.2	3.6	3.3	3.3	75
도 배 지	2.5	2.6	3.2	3.7	3.3	3.0	85
커 튠	2.7	3.0	3.3	3.5	3.5	3.0	85
가 구	2.6	3.0	3.3	3.5	3.0	3.2	80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한편, 제품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몇가지 지표로 국산 건자재의 대외경쟁력을 추정해보면 인조석재, 타일, 방수재, 석고보드, 도배지, 커튼 등 6개 제품에서 다소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리와 카페트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서 가격은 양호한 측에 속하고 홍보판매와 금융결제는 약간 불량하다고 평가돼 국제시장에서의 영업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났다.

건축 뿐만 아니라 통신설비나 토목공사 등 모든 건설공사용 기자재의 경쟁력을 보면, 국내 기자재산업이 외국에 비해 취약한 분야는 역시 홍보 및 마케팅력의 부족문제가 19.5%, 생산기술의 부족이

16.4%, 규격화 및 양산체제 미구축이 15.7%로 지적됐다. 전체적으로 볼때 비가격적 요소 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것은 대부분의 국내 전자재 생산기업들이 지금까지 수출보다는 내수부문의 수요에만 초점을 맞추어 생산기술 및 생산량을 결정해 왔고, 정부 또한 양적인 건설수출에 치중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정책을 운용해 온 결과로도 풀이된다.

<화학저널 1994/12/1>